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인터뷰

“盧정신은 ‘통합’... 민주세력 분열 극복해야”

“친노 정권탈환 노선·방법 놓고 분화 가능성”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아 친노 세력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병완(광주 서구의원)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2일 “친노 세력은 민주당의 미래와 정치권의 미래, 또한, 정권탈환을 위한 노선과 방법 등으로 인해 향후 새로운 분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은 원칙과 신뢰, 반 특권·반 패권·반 권위주의와 함께 지역 분열주의 극복을 통

한 통합의 정치였지만, 이러한 정신을 향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각자 개인의 몫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노무현 정신이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던 만큼 앞으로 노무현 정신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지는 정치인들 개인 몫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은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통합해 나가자는 것이고, 분열했던 민주세력을 통합해가는 것”이라며



은 향후 친노세력의 분화를 전망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세 그룹으로 나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 방법은 이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상황에 맞게끔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친노’에 대한 용어와 관련 “실제 친노와 비노, 반노라고 명명된 진영의 명칭은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정치적 용어일 뿐”이라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세 그룹으로 나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최근 이백만 전 국정홍보처장의 저서 ‘노무현이 우리들과 나누고 싶었던 9가지 이야기’에 대한 서평을 통해 ‘반노의 길을 감시다’란 역설적인 주장을 던져 관심을 모았다.

그는 서평에서 “친노에겐 ‘노무현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라, 그래서 노무현 정신을 반의 반만이라도 실천하라’고, 반노에겐 ‘진정한 반노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라, 그래서 반노를 진정으로 실천하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오늘 봉하마을서 노 전대통령 추도식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공식 추도식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치러진다.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을 비롯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진보정의당 조준호 공동대표 등 야당 주요인사, 박원순 서울시

장·송영길 인천시장·안희정 충청남도지사 등이 참석한다.

또 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참여정부 주요 인사와 이병완 이사장 및 문성근 이사, 문재인 전 이사장 등 노무현재단 관계자 등도 참석한다.

추도식은 명계남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애국가

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이어 고영구 전 국정원장의 추도사, 추모 영상 상영, 추모곡, 유족 인사말, 추모시 낭송, ‘상복수’ 합창, 묘역참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기념공원위원회는 22일부터 23일 오후 7시까지 광주 YMCA 무진관에 추모분향소를 마련, 각계의 합동 분향이 이어지고 있다. 25일에는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추모 문화제도 열린다.

朴대통령 6월말 방중 한중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청와대 김형 대변인은 22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중 간에는 6월 말을 염두

에 두고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이달 초 미국에 이어 취임 후 두번째 해외 출장이 된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

담에서 북한 문제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언론사 정치부장단과 만찬에서 “중국에서 가급적 방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 얘기를 왔기 때문에 저도 가능한 한 빨리 중국을 방문하러 한다”고 밝혔다.

北 김정은, 中에 특사 최룡해 급파

시진핑에 메시지 전달 듯... 한반도 정세변화 주목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2일 중국에 특사를 전격 파견, 경색된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는 이날 “김정은 동지의 특사로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특별비행기로 22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최룡해는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 상무

위원을 겸하는 군부의 최고위급 인사다. 특사단에는 김성남 당 국제부 부부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과 리영길 총참모부 작전국장, 김수길 중장(우리의 소장) 등 군부 인사가 포함됐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에 특사를 보내기는 이번이 처음이고, 북한이 중국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기는 작년 8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이후 9개월 만이다.

북한 매체는 최 총정치국장의 방중

목적과 일정 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김 제1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 기간 중·조(북·중) 쌍방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및 공통으로 관심을 둔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중국은 변하지 않는 의지로 6자 회담을 추진하고 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을 이끌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원폭보다 수백배 강한 토네이도 초강력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무어시의 플라자 타워수 초등학교가 처참하게 부서진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건물 잔해를 살살이 뒤지고 있다. 이번 토네이도로 사망자 수가 100명에 육박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으며, 그 파괴력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수백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자 노트

대통합의 첫걸음

지난 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치러진 제33주년 5·18 기념식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취임 첫해에 기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해 광주시당에서 건넌받은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경청한 것이다. 5·18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틀러싸고 ‘합창’ 방침을 고수하는 보훈처와 ‘제창’을 요구하는 광주 시민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통령님이 같은 행동을 분명 놀랍고, 예외적인 것이었다. 행진곡은 란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념식 참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돌이켜보면, 이날 박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과 ‘임을 위한 행진곡’ 경청은 말 그대로 시의적절한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박 대통령이 33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참석했다라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그제 앉아서 듣는데 그쳤다면, 그가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오던 ‘통합의 정치’는 의미가 크게 퇴색했을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이 강조해온 ‘통합의 정치, 탕평의 정치’는 호남을 겨냥한 것이었던 만큼, 호남 일



홍행기 사회탐장

었지만, 이날 말없이 태극기를 들고 일어난 것은 호남인의 서운함을 잠재우고 갈등을 치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일부에서 평가받고 있다.

후일담이지만, 박 대통령이 일어난 것은 이날 광주공항 귀빈실에서 대통령을 독대, ‘태극기 두 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대통령의 것이고 또 하나는 제 것’이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릴 때 일어나 이 태극기를 들어주시라”고 설득한 강시장의 간곡한 요청이 주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5·18 기념식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한다”고 주장한 이정현 정부수석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 호남출신 인사들의 진언도 대통령의 기

‘5·18기념식’ 불참은 새 정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과 거센 반발을 불러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던 그 시각, 공항 귀빈실에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던 박 대통령에게 강은태 시장이 정중히 내민 태극기에는 ‘통합과 탕평’을 애타게 촉구하고 또 기대하는 호남인의 간절한 심경이 배어있었다. 대통령이 태극기를 건넌받은 것은 호남인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의지의 표시인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5·18기념식 참석과 ‘임을 위한 행진곡’ 경청이 호남인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통합으로 이어지는 첫 발짝이 되길 기대한다.

광주서 ‘통일기원 국민대토론회’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은 22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 통일기원 광주·전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5·18 민주화 정신의 승화와 통일 한국 실현을 위한 국민과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통일부와 광주시, 전남도, 광주·전남 시·도 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교육협의회가 후원했으며 언론인 추성춘씨가 사회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채완 전남대 교수는 ‘남북관계 위기 극복의 해법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과제’

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정부 시기의 남북한 갈등 관계가 현재까지 지속하면서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계만 조선대 교수는 ‘5·18 정신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민과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최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왜곡·비방·날조· 폄하·모욕되고 있는데, 이는 곧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정당성을 탐보하는 것이며,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광주·전남의 민족혼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려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공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부동산 거래,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금매매

두암타운사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지하1층	주차장
1층	치킨호프
2층	PC방
3층	독서실
4층	학원
5층	골프존
6층	주택

매매가격 23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8억 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급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료시설 대지1026㎡ 건물2890㎡ 감정가129억 최저가120억
- ▷ 광산구 쌍암동 상업지역 3층근린시설 대지3238㎡ 건물3090㎡ 감정가172억 최저가120억
- ▷ 서구 쌍촌동 2층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80㎡ 건물198㎡ 감정가15억5천만 최저가13억8천만
- ▷ 영광읍 녹사리 7층근린시설 대지5111㎡ 건물3290㎡ 감정가25억 최저가17억

단독주택

- ▷ 동구 내남동 전원주택 대지952㎡ 건물203㎡ 감정가14억3천만 최저가12억4천만
- ▷ 동구 산수동 2층단독주택 대지186㎡ 건물70㎡ 감정가2억 최저가1억4천만

공장및창고

- ▷ 광산구 월전동 평등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5289㎡ 건물3587㎡ 감정가126억 최저가15억
- ▷ 강진읍 송덕리 공장및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194억 최저가11억

토지매매

- ▷ 회송읍 연암리 자연녹지 대지1121㎡ 감정가4,600만 최저가3,200만
-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12억2천만 최저가1억2천만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총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임대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1층 92평
2층 72평
시설완벽!
권리금 없음
모든업종가능

010-3701-476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